

85년의 역사를 사랑하는 파일럿 워치

'스페셜 파일럿 워치(Special Pilot's Watch)'와 기능에 충실한 군사용 관측 및 항공 시계부터 현대적인 파일럿 워치에 이르기까지, IWC는 조종석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정밀하고 견고한 제품 제작에 광범위한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IWC의 파일럿 워치는 박진감 넘치는 모험이 시작될 것 같은 느낌이 들게 합니다. 파일럿 워치를 착용하는 순간 비행의 마법이 시작되며 IWC만의 특별한 품격을 선사합니다. 파일럿 워치는 본래 조종석에서 사용하기 위해 뛰어난 정밀성을 갖춘 시계로 제작되었으나, 현재는 일상생활에서 착용하기 좋은 매력적인 스포츠 타임피스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IWC의 파일럿 워치 역사는 항공 역사 초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에는 정확한 손목시계가 조종석 계측 시스템의 필수 장비였으며, 조종사의 생존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시계는 주로 비행시간이나 엔진 작동 시간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사용되었지만 시계 비행(Visual Flight) 중 항법을 위해 유용하게 사용되는 도구이기도 했습니다. 육분의(Sextant)가 결합된 고도의 정밀성을 보장하는 손목시계는 착용했을 때 천문 항법을 사용하여 현재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IWC는 기술 계기 장치의 선구자로서 조종사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장치를 제작해 왔습니다. 1936년 IWC 샤프하우젠은 '스페셜 파일럿 워치(Special Pilot's Watch, Ref. IW436)'를 개발하였습니다. 당시 IWC의 소유자였던 언스트 야곱 홈버거(Ernst Jakob Homberger)의 두 아들에 의해 탄생한 시계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열정적인 조종사였기 때문에, 조종사가 원하는 바를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디자인의 기술적 특징으로는 항자기성 무브먼트와 비산 방지 전면 글래스가 포함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타임피스는 -40°C ~ +40°C 사이의 온도에서도 완벽한 성능을 보장하여 그 당시 난방이 되지 않는 조종석에서 사용하기 적합한 제품이 되었습니다.

빅 파일럿 워치 칼리버 52 T.S.C.(Big Pilot's Watch Calibre 52 T.S.C., Ref. IW431)는 1940년대에 군사용 관측 시계에 적용되는 엄격한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며, 후에 빅 파일럿 워치 디자인의 모태가 되었습니다. 케이스 직경 55mm, 두께 16.5mm, 중량 183g을 자랑하는 이 파일럿 워치는 현재까지 IWC에서 제작된 손목시계 중 크기가 가장 큼니다. 가독성이 뛰어난 조종석 계기판을 모티브로 설계한 간결한 다이얼, 두꺼운 비행용 쿨링 장갑을 착용한 상태에서도 손쉽게 조정 가능한 매력적인 원추형 크라운은 현재까지 빅 파일럿 워치 디자인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IWC 샤프하우젠에서 제작한 파일럿 워치 중 가장 유명한 제품은 1948년에 제작된 시계입니다. 영국왕립공군(RAF: Royal Air Force)의 의뢰를 받은 IWC는 칼리버 89를 탑재한 **네비게이터 손목시계 마크 11**(Navigator's Wristwatch Mark 11)을 제작했습니다. 시계를 제작하는 데 있어 한 가지 주요한 요구 사항은 자기장으로부터 무브먼트를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사용했던 레이더 장비는 시계의 성능을 저하시킬 수 있는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켰기 때문입니다. IWC는 연철을 사용하여 이너 케이스를 제작하고 다이얼이 케이스 상단을 구성하도록 설계한 워치를 제작했습니다. 이러한 설계는 패러데이 새장처럼 무브먼트 주변의 전자기 복사를 차단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조종석에서 갑작스러운 기압 강하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느슨해지지 않고 견고하게 고정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된 안정적인 전면 글래스입니다. 발광 소재를 적용하여 뚜렷한 대비를 이루는 구조화된 다이얼은 주위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언제나 우수한 가독성을 보장합니다.

IWC 샤프하우젠의 현대 파일럿 워치는 1992년에 출시되었습니다. IWC의 엔지니어들은 뵈쥬(Valloux) 칼리버 7750을 탑재한 더블 크로노그래프를 기록적인 짧은 시간에 - 단 몇 주 - 개발하는 데 성공하였고, 덕분에 동시에 두 개의 짧은 시간을 측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파일럿 워치 더블 크로노그래프(Pilot's Watch Double Chronograph, Ref. IW3711)**로 인해 IWC는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는 견고하고 정밀한 크로노그래프를 제작하는 전문가라는 명성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IWC는 또한 일찍이 파일럿 워치에 혁신적인 새로운 케이스 소재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1994년에 제작된 **파일럿 워치 크로노그래프 세라믹(Pilot's Watch Chronograph Ceramic, Ref. IW3705)**은 블랙 산화지르코늄 세라믹 소재 케이스를 사용하였으며, 견고한 내스크래치성 소재를 사용하여 제작된 최초의 파일럿 워치였습니다. 999피스만 한정 생산되었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수집가들이 많이 찾는 크로노그래프입니다.

IWC의 파일럿 워치 시리즈는 2002년에 **빅 파일럿 워치(Big Pilot's Watch, Ref. IW5002)**를 출시하면서 하나의 이정표를 세우게 됩니다. 기능성 군사용 관측 시계에서 얻은 영감을 바탕으로 탄생한 이 제품은 조종석 계기판을 본뜬 다이얼과 46.2mm의 오버사이즈 케이스로 파일럿 워치의 진정한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때로는 과감한 디자인을 선보였던 다수의 스페셜 에디션 덕분에 빅 파일럿 워치는 현재 지구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워치 디자인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2007년에 IWC는 블랙 산화지르코늄 세라믹 소재를 사용하여 **더블 크로노그래프를 제작하였습니다. 파일럿 워치 더블 크로노그래프 탑건 에디션(Pilot's Watch Double Chronograph TOP GUN Edition, Ref. IW379901)**의 명칭은 "탑건"이라고도 알려진 전설적인 미 해군 전투기 훈련 학교

(US Navy Fighter Weapons School)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전투기 훈련 학교는 미 해군의 최고 조종사들이 "특별 훈련 프로그램(Strike Fighter Tactics Instructor)" 강사로 복귀하기 전에 비행 기술과 전술을 연마하는 곳입니다. 해군 항공 환경의 극심한 압박에 견딜 수 있도록 탑건 워치는 티타늄과 세라믹처럼 매우 견고한 내부식성 소재로 제작되었습니다. 블랙 세라믹은 완벽한 반사 방지를 보장하므로 조종석에 있는 조종사는 반사된 햇빛으로 인해 눈이 부실 염려가 없습니다. 또한 내스크래치성을 보장하는 소재가 사용되어 협소한 조종석에서도 일상적으로 착용하기에 적합합니다.

2019년에 IWC는 파일럿 워치 컬렉션에 처음으로 세라타늄(Ceratanium®) 케이스를 탑재한 **파일럿 워치 더블 크로노그래프 탑건 세라타늄(Pilot's Watch Double Chronograph TOP GUN Ceratanium)**을 선보였습니다. IWC에서 개발한 획기적인 소재인 세라타늄은 티타늄만큼 무게가 가볍고 견고하며, 세라믹만큼 단단하고 내스크래치성이 뛰어납니다. 또한, 착용했을 때 손목에서 더욱 돋보이는 매트 블랙 컬러가 특징입니다.

IWC는 스위스 워치메이커 중 유일하게 미 해군을 위한 파일럿 워치를 개발할 자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US Navy Strike Fighter Squadron 102 중대를 위해 '다이아몬드백스(Diamondbacks)' 에디션을 개발하였고, US Navy Strike Fighter Squadron 211 중대를 위해 '파이팅 체크메이트(Fighting Checkmates)' 에디션을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1936년에 그러했던 것처럼, 파일럿 워치는 현재에도 최고의 조종사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개발되고 있습니다. 파일럿 워치를 일상에서 사용하는 조종사들이 제공하는 피드백은 IWC의 엔지니어들이 85년 후에 선보일 파일럿 워치의 디자인을 개선하고 완성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IWC 샤프하우젠

1868년 미국인 워치메이커이자 기업가였던 플로렌타인 아리오스토 존스(Florentine Ariosto Jones)는 보스턴을 떠나 스위스 샤프하우젠에서 '인터내셔널 워치 컴퍼니(International Watch Company)'를 설립하였습니다. 그의 원대한 꿈은 미국의 선진 제작 기술과 스위스 워치메이커의 장인 기술을 결합하여 당대 최고의 포켓 워치를 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기술의 결합을 통해 그는 IWC의 고유한 공학적 제작 방식의 기반을 닦았을 뿐 아니라 스위스 기계식 워치의 중앙 집중형 생산 방식을 탄생시켰습니다.

150년이 넘는 기간 동안 IWC 샤프하우젠은 특히 크로노그래프와 캘린더를 중심으로 독창적이고 견고하며 고객이 사용하기 편리한 기능적인 컴플리케이션을 제작한다는 명성을 쌓아왔습니다. 티타늄과 세라믹 소재를 사용한 IWC는 이제 티타늄 알루미늄(titanium-aluminide) 및 세라타늄(Ceratanium®) 등 최첨단 소재를 사용한 고도로 공학적인 기계식 워치 케이스에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장식보다 "기능에 기반한 형태"라는 원칙을 우선시하는 IWC 샤프하우젠의 시대를 초월한 타임피스에 고객과 삶의 여정을 함께 하며 꿈과 야망을 실현할 것입니다.

IWC는 책임을 다하여 소재를 조달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며, 다음 세대까지 전해질 수 있도록 본질적으로 지속 가능한 타임피스를 제작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또한, IWC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워치메이커와 엔지니어를 교육하고 모든 직원에게 최고의 근무 환경을 제공한다는 사실에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어린이 및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세계적인 기관과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협력 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운로드

이미지는 press.iwc.com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프레스 문의

IWC 샤프하우젠

Public Relations department

이메일 press-iwc@iwc.com

웹사이트 press.iwc.com

인터넷 및 소셜 미디어

웹사이트 iwc.com

Facebook facebook.com/IWCWatches

YouTube youtube.com/iwcwatches

Twitter twitter.com/iwc

LinkedIn linkedin.com/company/iwc-schaffhausen

Instagram instagram.com/iwcwatches

Pinterest pinterest.com/iwcwatches